

게일 文法書의 몇가지 特徵*

—原則談의 設定과 關聯하여—

沈 在 箕

- | | |
|-------------------|--------------------|
| 1. 序 言 | 3. 原則談의 設定 問題 |
| 2. 게일의 文法書 | 3.1. 原則法의 文章들 |
| 2.1. 세 종류의 文法書 | 3.2. 原則法을 設定한 文法論들 |
| 2.2. 初刊本과 改訂本 | 3.3. 原則談의 設定 |
| 2.3. 慣用表現에 대한 關心 | 3.4. 原則談의 特性 |
| 2.4. 注目할만한 語彙와 例文 | 4. 結 語 |

1. 序 言

1.1. “역사는 끊임없이 다시 쓰이어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은 현재의 시점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19세기말 이른바 한국의 개화기에 캐나다에서 선교사로 와서 활약한 J.S. Gale의 저서에 대하여서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후, 1888년 12월에 25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선교사로 부임하여 40년간 선교활동 및 저술활동에 온 정력을 기울였다.

이 논문은 그의 저서 가운데 한국어 문법서 <辭課指南, Korean Grammatical Forms>에 나타난 몇가지 特性을 새롭게 밝혀보려는 데 目的을 두고 있다.

1.2. J.S. Gale은 한국어문법서(이하에서는 K.G.F.로 줄여 적음)를 세 번에 걸쳐 간행한다. 初刊本은 1894년에 나오고, 그것의 重刊本은 1903년에 나오며 세번째에는 全面 修正을 단행하여 새롭게 체계를 꾸민 改訂本으로 1916

* 이 글은 제 6차 한국어학 국제회의(The 6th Conference of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이 회의는 1988년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는 J.S. Gale의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을 겸하는 것이었으므로 필자는 Gale 문법서를 관용표현 탐구의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년에 간행된다. 한 권의 책을 22년에 걸쳐 修正增補하였다. 重刊本은 綴字法이외에는 고친 것이 별로 없으나, 改訂本은 체제를 크게 바꾸었다. 本稿는 이들의 差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검토하는 데 主眼點을 두어 論議하고자 한다.

1.3. 논의에 앞서 한두가지 주변문제를 점검해 두기로 한다.

첫째는 Gale이 한국에서 활동한 시기가 國語史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1888년부터 40여년간은 한국 근대사의 격동기에 해당한다. 흔히 開化期로 불리어지는 이 시기에 한국은 封建王朝가 몰락하고 西歐列強의 默認아래 日本의 植民地로 전락한다. 그러는 동안 한국의 文化的 傳統은 급격하게 변모하였고 많은 부분에서 과거부터 존속되어온 한국적 순수성이 喪失되었다. 한국어의 경우, 이 시기를 마지막으로 하여 近代國語의 모습은 자취를 감춘다.

둘째는 Gale의 광범한 저술활동 가운데서 문법서 K.G.F.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의 저술활동은 크게 두가지 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한국사람을 계몽하기 위한 저술이요, 다른 하나는 한국의 언어, 역사, 풍속 등을 서양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저술이다. 앞의 것으로는 <天路歷程(1895)> <牖蒙千字(1903~1909)>같은 책이 있으며, 뒤의 것으로는 <韓國近代史(Korea in Transition)> <韓國風俗誌(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등이 있다. 그러나 그의 저술활동은 순수한 학자로서의 탐구 열마저 느끼게 하는 면이 없지 않다. <漢陽誌><金剛山誌><韓國結婚考> 등은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소개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人文學的 研究成果로 보아도 좋을 책들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는 宣教師인 동시에 教育者요, 文化史學者였다.

1.4. 위와같은 두 가지 사실은 K.G.F.가 지닌 基本性格을 암시한다.

첫째로 K.G.F.는 한국어 최근세의 後期 言語資料가 된다는 점이다. 한국어의 최근세는 대체로 19세기 언어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개화기에 해당하는 기간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엽에 걸친다. 이 시기는 한국어가 固有性(‘純粹性’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겠다.)을 유지한 마지막 기간에 해당한다. 즉 아직은 日本語나 서양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시기이다. 따라서 전통적 고유 한국어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1880년에서 1920년까지를 최근세 후기 한국어로 볼 수 있겠는데, 흥미롭게도 이 기간에 Gale이 한국에서 활약하였고 또한 문법서 K.G.F.(辭課指南)를 간행하였다. 그러므로 K.G.F.는 자동적으로 한국어 최근세 후기언어자료로서의 가치가 주목된다. Gale은 이 책 서문에서 한국의 각 지역에서 자연스런 口語를 例文으로 수집하여 수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말하자면 현지답사에서 채록한 생생한 생활언어가 기록된 셈이다. 19세기말의 언어자료로서 이것처럼 좋은 자료는 흔치 않을 것이다.

둘째로, 현장에서 채록된 例文들은 한국어의 文章構造를 보여준다는 표면적 목적이외에 한국인들의 生活感情과 意識構造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언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서양사람을 독자로 상정한 문법서이기 때문에 한국사람을 이해시킨다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인 만큼, 이 책은 그러한 목적에 맞는 편집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예문을 수집하여 정리할 수 있는 안목은 Gale의 文化史學者的 素養과 깊은 관계가 있다. 거의 100년이 흐른 현재의 時點에서 이들 예문들은 한국사람들에게 조차 조상들의 생활양식, 세계관, 인생관등을 이해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19세기말 한국서민들의 생활상과 의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 실정에서 이 K.G.F.는 새롭게 주목하여야 마땅하다.

2. 게일의 文法書

2.1. 세 종류의 文法書⁽¹⁾

K.G.F.(辭課指南) 初刊本이 간행된 1894년은 한국의 開化가 政府次元에서

(1) 이들 文法書의 書誌的 解說은 金敏洙 外編(1979)의 影印本 歷代韓國文法大系 第2部 第4冊에 이미 자세하게 나와 있다. 便宜를 위하여 간략하게 다시 적는다. 初刊本(1984)은 vi+249 총 255面 洋裝 46倍版이며 美州北長老教 宣教會 소속임을 밝히고 Trilingual Press社刊으로 되어 있다. 重刊本(1903)은 ii+vi+229 총 237面 半洋裝의 新菊版이며 出版社는 Methodist Publishing House로 바뀌었다. 改訂本(1916)은 皮革洋裝 46版의 vi+264+v 총 275面の 호화장정이고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出版으로 되어 있다.

이 三種의 Gale 文法書를 흔히 <辭課指南>으로 通稱하고 있으나 改訂本에서는 이 漢字册題가 削除되었으므로 三種 책의 공통제목은 <Korean Grammatical Forms>이다. 따라서 本稿는 略稱·通稱의 경우에 KGF를 쓴다.

制度上으로 시행된 甲午更張의 해이기도 하다. 이 책은 前半 文法部와 後半 例文部로 兩大別되어 있다. 전반 문법부는 164개 項目에 걸쳐 韓(있다, 이다 包含) 動詞의 活用語尾, 格助詞, 複數表示接尾辭, 冠形形 및 副詞形 語尾 (英文法 체계에 따라 過去分詞라 하였음), 使動·被動·自動化形態, 名詞의 尊稱形態 및 文章의 接續과 連結機能形態 등을 說明하였다. 이 설명은 4개의 난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난에는 經書諺解에 나오는 口訣을 적었고, 둘째 난에는 諺文 文語形을, 세째 난에는 諺文 口語形을 적었으며 네째 난에 가서 英文解說과 例文을 소개하고 있다. 해당란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공란을 두었고 名詞의 尊稱形態는 一般形, 尊稱形, 英語對譯語의 세 난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後半 例文部는 主題別 57分野로 나누어 1,098個 문장을 例示하고 있다.⁽²⁾ 이들 例文은 當代 韓國人의 가장 自然스런 일상의 발화문을 수집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한국인의 표준회화문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著者 자신이 序文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인의 風俗 民俗信仰이나 行爲, 日用事에 관련된 것들을 간추렸으므로 그 당시 한국 서민의 사상·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實證的인 言語資料가 된다.

1903년 간행된 重刊本 K.G.F.(辭課指南)은 기본적으로 初刊本과 同一한 冊이다. 다만 ‘諺文’이란 用語를 ‘國文’으로 바꾸고 아래 아(·)를 전면적으로 폐기하였으며 ㅅ, ㅈ, ㅊ을 音節初頭音으로 하는 ㅅ ㅈ ㅊ를 모두 單母音 ㅅ ㅈ ㅊ로 고쳐놓은 것 이외에 내용을 수정한 것은 없다.

1916년에 간행된 改訂本은 初刊本을 전면적으로 改編補訂하였다. 外見上 두드러진 변화는 辭課指南이란 漢字題名을 없애고 簡要를 위주로 하여 자그마한 4·6版으로 꾸민 점이다.⁽³⁾ 著者는 序文에서 이 문법서가 한국어를 體

(2) 初刊本의 경우에 심심치 않게 誤譯, 誤刷가 散見된다. 初刊本 序文 다음에 例文目次가 있는데 第25主題 樹木에서부터 第36主題 衣冠까지의 例文番號, 第48主題 脚力, 第50主題 言語의 例文番號는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第49主題 心動은 아에 脫落되어 있다. 例文 하나를 添削하는 編輯過程에서의 錯誤로 推定되는데 興味롭게도 이 錯誤는 9年뒤에 刊行한 重刊本에서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3) Gale은 이 文法書를 執筆함에 있어서 先行業績의 도움이 컸음을 告白하면서 특별히 프랑스 宣敎師들의 업적인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와 Grammaire Coréenne를 손꼽고 있다. 그러므로 이 文法書는 Grammaire Coréenne와 같은 系列에 있음을 알 수 있다. 改訂本의 表記法이 復古性을 띤 것도 1880년대의 Grammaire Coréenne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系的으로 설명한 완전한 文法書가 아니라 한국어를 말해야 하는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문제만을 취급하였음을 強調하였다. (물론 英語를 母語로 하는 基督教 宣教師를 의중에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또한 가장 力點을 둔 것은 외국인의 思想에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韓國語 例文을 모아 정리하였다고 말한 점이다. 이러한 改訂本의 편찬취지는 순수 한국어라는 言語資料를 통해 한국인을 이해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흥미롭게도 重刊本에 보였던 表記法의 變改가 다시 取消되고 初刊本과 마찬가지로 아래 아(·), “사, 자, 차……” 대신 “샤, 자, 차,……”같은 표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즉 表記法은 初刊本과 동일한 體系로 還元하였다. 이와같이 이 改訂本은 表記上의 옛스러움을 통하여 한국인의 意識의 原型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初刊本의 體裁와 對比해 보면 前半 文法部는 35개의 文法上의 主題를 240個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했고, 後半 例文部는 基礎文章 100, 俗談 200, 一般例文 550, 日常漢字熟語 321로 구성되어 있다.

2.2. 初刊本과 改訂本

初刊本과 改訂本사이의 변화를 도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初 刊 本	改 訂 本
前半·文法部	文法形態 164項目 (264個 語尾)	文法形態(35主題) 240個 項目
後半·例文部	57主題, 例文 1098	基礎文章 100 俗 談 200 一 般 例 文 550 日 常 漢 字 熟 語 321 } 例文 1171

前半 文法部에서는 文法形態들을 主題別로 細分하면서 項目을 늘려 설명함으로써 좀더 親切한 배려를 하였으나 體裁上의 변화를 발견할 수는 없다. 그런데 後半 例文部는 改訂本에서 크게 달라진다. 初刊本의 例文 1,098個 文章은 改訂本에서 主題別 區分없이 一般例文 550개 文章으로 縮小 調整되는 대신 初心者를 위한 基礎文章 100개가 따로 設定되고 俗談 200개, 漢字 熟語 321개를 추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98個 文章이 1,171個 文章으로 바뀌었으므로 分量上의 增加는 별것이 아니지만 俗談과 漢字 熟語의 追加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Gale이 言語를 통하여 文化를 이해하

고자 할 때, 慣用表現 내지 談話慣習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깊이 이해하였다는 증거이다. 그는 한국인의 生活風俗과 意識構造를 바르고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이 通用되는 慣用表現의 習得에 있음을 깨달았으며 그것이 俗談과 漢字熟語의 두 部類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매우 합당한 생각이었다. 아마도 이 改訂本으로 韓國語를 공부한 英美系 宣教師들은 初刊本으로 공부한 것보다는 훨씬 나은 成果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2.3. 慣用表現에 대한 關心

그러면 Gale⁽⁴⁾이 俗談과 漢字熟語에 注目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가 基督教 宣教師라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 基督教 聖經에서 舊約의 箴言은 모두 古代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규범과 의식의 향배를 짐작하게 하는 教訓的인 俗談의 集成이라 할 수 있으며 新約의 四福音書에는 예수가 當代에 通用되던 俗談을 즐겨 응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스스로 말한 即興的인 比喻·表現이 오늘날 俗談으로 定着하여 名言처럼 인식되고 있다.⁽⁴⁾ 이러한 聖書的 분위기는 새로운 언어를 만났을 때, 자연히 그 언어에서 人口에 膾炙되는 俗談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던 차에 1908년 梁在謩이란 분이 <耳談續纂>을 刊行한다. 이 耳談續纂은 원래 丁若鏞의 著述로 우리말 俗談 200여를 漢文으로 번역한 것인데 梁在謩은 이 丁若鏞의 책을 底本으로 하여 漢文과 우리말을 함께 수록하였다. 한편 1913년 崔瑗植은 <朝鮮俚諺>이란 제목으로 한국속담 900여를 모아 놓은 책을 펴낸다.⁽⁵⁾ Gale이 200個의 俗談을 改訂本에 수록한 것은 그의 俗談

(4) 新約聖書 가운데에서 오늘날 俗談처럼 쓰이는 句節을 몇 개 例示해 보기로 한다.

①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입니다. (마태 24:28, 루가 17:36) ②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고 병자에게 필요합니다. (마르코 2:17, 마태오 9:12, 루가 5:31) ③ 새 포도주는 새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루가 5:38, 마태 9:17, 마르코 2:22b) ④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요한 4:37) ⑤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요한 4:44) ⑥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요한 12:24). ⑦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는 주워 먹습니다(마태 15:27, 마르코 7:28).

⑧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루가 9:58a). ⑨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 땅을 씌우지 말라(I 디모테오 5:18).

(5) 李基文(1962) 俗談辭典 序文參照

에 대한 關心과 한국에서의 俗談集刊行의 분위기가 우연하게도 調和를 이룬 것이라 생각된다. Gale이 俗談을 별도로 묶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는 데에는 初刊本の 例文部에 들어 있던 다음과 같은 例文도 한몫을 하였을 것이다.

(()안의 번호는 初刊本 例文部の 番號임)

- (266) 범을 그리되 가족만 그리지 썩야 그리겟느냐.
- (311) 썩 잡는 게 딱니라.
- (328) 산 도야지 잡으러 갔다가 집 도야지 일허버렸네.
- (352) 꼬리싸움에 새우가 등 터진다.
- (388) 서돈씨리 푸닥거리에 콩나물 든반에치라고.
- (428) 호박씨 까서 훈입에 너었다.
- (547) 가난구제는 못하느니.
- (1048) 망전쓰다 장 파하겟다.

漢字熟語에 대한 Gale의 關心은 韓國을 文化的으로 理解하려는 基本姿勢의 자연스런 發露라고 보아야 한다. 基督教 聖書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려는 사람에게 희랍어 라틴어 등 서양의 고전 언어가 필수이듯이 漢字文化圈에 속하는 東洋, 특히 韓國에서 漢字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이 오랜동안 漢文化에 浸蝕되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Gale로서는 韓國人의 日常言語에서 漢字語가 차지하는 比重이 얼마나 큰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일찌기 聖書의 한국어 번역사업에도 관여하였으므로 韓國語에서 漢字語의 機能이 얼마나 큰 것인가도 깊이 洞察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Gale이 改訂本 K.G.F.에서 日常漢字熟語 321個를 별도로 수록한 것은 그가 한국에 머물며 선교와 저술활동을 하는 동안 漢字語 및 漢字熟語가 한국어에서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점점 더 절실하게 깨달은 증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改訂本の 俗談부분에는 다음 例에서 보듯 이미 漢字熟語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안의 번호는 改訂本 俗談部の 番號임)

- (11) 궁무소불위(窮無所不爲)
- (80) 하우불이(下愚不移)
- (124) 춘치자명(春雉自鳴)
- (167) 금의야행(錦衣夜行)
- (173) 오수부동격(五獸不同格)
- (191) 설상가상(雪上加霜)
- (192) 구복원수(口腹怨讐)

- (193) 증이 파의(甑已破矣)
 (198) 류류상종(類類相從)

이러한 형편에서 漢字熟語를 별도로 정리하는 것은 不可避한 일이었을 것이다.

2. 4. 注目할만한 語彙와 例文들

初刊本 K.G.F.의 例文部를 읽어나가는 동안, 우리는 史劇이나 史劇映畵에 나오는 19세기 한국 서민들의 체취에 압도된다. 그들의 말씨가 담고 있는 素朴性和 土俗性은 100년전 韓國의 情景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다. 어떤 語彙는 옛스런 表記와 方言的 特性 때문에 辭典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辭典에 登載되어 있기는 하지만 例文이 指示하는 文脉的 意味를 사전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들도 많다. 그런가하면 當時 庶民의 豪奢스러움의 단면들이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可謂 19世紀末의 韓國의 風物誌라고 하여도 손색이 없다. 이제 代表的인 例를 몇 개씩 적어 보기로 하겠다. (()안의 번호는 初刊本 例文部의 番號임)

<1> 먼저 요즈음 안목으로 보아 생소한 느낌을 주는 어휘를 보기로 한다.

- (A) (56) 훈증(薰蒸) : 찌는 듯한 무더움
 (129) 마감 : 종결. 결산(決算)
 (245) 봉족(奉足) : 협조자, 도와주는 사람
 (253) 학구(學究) : 시골 글방의 선생.
 (259) 주름 : 중개(仲介) 대행인(代行人)
 (289) 눈숨 : 눈시울
 (380) 식짜기 : 날이 선 풀잎.
 (390) 술비우치 : 술독(酒毒)을 제거하기 위하여 먹는 음식
 (432) 약게 : 약방(藥房) 약가게.
 (517) 다리명 : 다리끝. 교각(橋脚)의 끝부분
 (575) 다림 : (한쪽 눈을 감고) 수평·수직을 보는 일.
 (941) 변탕(邊鑊) : 나무 두께를 알기 위해 변을 깔는 대패.
 (946) 성관성(誠款性) : 남의 일 잘 보아주는 마음
 (981) 소라기 : 득뚜경
 (989) 모슴 : (한웅큼의) 머리터럭
 (1004) 천근장스(千斤一) : 푸성귀 행상인(行商人)
 (1030) 생이(生涯) : 직업(職業)

- (1063) 선토(扇貂) : 부채고리에 매어다는 장식
 (1091) 길구락(一軍樂) : 길거리를 행진하면서 연주하는 일.
 (B) (10) 스랑하다 : 이것 저것 생각이 많다.
 (58) 약약하다 : 힘들고 귀찮은 것을 억지로 하다.
 (120) 시루하다 : 시루에 떡을 찌다.
 (209) 속고라지다 : 물이 팔팔 끓을 정도로 더워지다.
 (244) 싸다 : 선발하다.
 (244) 번고하다(反庫一) : 검사하다.
 (1032) 범남하다(汎濫一) : 규칙에서 벗어나다. 분수 모르고 행동하다.
 (1033) 미안하다(未安一) : 불안하다.
 (1049) 전장하다(傳掌一) : 양도하다. 인계하다.
 (1059) 표표하다(表表一) : 뛰어나게 두드러지다.
 (1064) 암암하다(暗暗一) : 구별할 수 없다.
 (1068) 거냉하다(去冷一) : 미지근하게 데우다.
 (1084) 의의하다(依依一) : 어렴풋하다.
 (C) (109) 장이 : 대단히
 (361) 꺾꺾로 : 꺾을 피워
 (1087) 디디하여 : 천천히
 (1092) 범범이 : 조심없이
 (1098) 모모이 : 모퉁이마다.

社會構造가 다르고 生活環境이 달랐던 100년전의 전통적 한국의 서민들이 일상으로 사용하던 語彙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처럼 생소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당연하면서도 신기하기 그지없다. 사실, 위에 인용한 例는 氷山의 一角이다. 날짜를 나타내는 날말, 삭(朔) 순(旬) 망(望) 념(念) 회(晦), 근무에 관계되는 날말, 체번(替番), 입번(入番), 출번(出番), 그리고 말하다에 속하는 날말, 간(諫)하다, 보(報)하다 등이 모두 100년전 王朝時代의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낸다.

<2> 다음은 당시의 風物을 나타내는 흥미있는 例文을 몇개 골라 보기로 하겠다.

(1017) 탑전(榻前)에 드리가 고자(告者)의 말더로 품슈(稟受)하옵소서.

임금에게 情報提供者의 말대로 報告의 말썬을 드리라는 내용의 표현이다. ‘드리가’와 ‘말더로’의 두 마디 固有語를 빼놓으면 現代語와의 거리가 엄청남을 발견한다.

- (639) 신부(新婦) 방(房)에 디의(地衣) 깔고, 장(帳)치고, 족즈(簇子)걸고, 병풍(屏風)치고, 타구(唾具), 지셔리, 빗집고비, 베투집, 필통(筆筒), 데경(體鏡), 돗쫘덕를 다 노았더라.

新婚夫婦의 방차림을 묘사한 말이다. 生活風習에 있어서 隔世의 느낌을 주는 風景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 멋부림과 奢侈라고 생각되는 장면을 보이는 例文이다.

- (638) 담방석에 뇌문(雷紋)노았구나.

- (642) 슈(繡)노은 약낭(藥囊)에 술끈 췌여 찾더라.

다음은 몸차림과 裝身具 및 그릇類를 묘사한 例文이다.

- (678) 횡전(行纏), 토슈(套袖), 두루막이, 단임, 휘항(揮項), 복건(幘巾), 장갑(掌匣), 허리셔, 주머니, 부시쌘지스지 다하엿소.

- (679) 귀엣쓰리, 가락지, 빈여, 노리리, 경리, 석경, 빗치리, 얼에빗, 연지분편, 연지, 귀이지, 쪽도리, 아얌, 쪽집리 다 사와소.

- (687) 향노(香爐), 향함(香盒) 모사그릇슬 제상(祭床)압 향상(香床)에 노아라.

- (688) 신선로, 실우, 합병, 차종, 바리, 종즈, 두리반, 슈가락, 슈전즈, 잔, 돗집반, 모도다 잇서야 쓰느니라.

- (689) 치롱상즈, 광주리, 체, 조리, 박음이, 솟코리, 키, 고리썩, 동고리, 삼타기가 다 짠 그릇시오.

위에 例示한 風物들은 오늘날에 와서는 民俗村이나 民俗博物館에 가야나 구경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3> 이러한 服飾과 治粧을 갖추고, 이러한 器皿을 사용하던 100년전의 韓國人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들의 소박한 世界觀의 一端을 짐작케 하는 例文 몇개를 살펴 보기로 하자.

- (7) 월식은 홍상 개가 버혀 먹는다 훗데다.

- (8) 허가 귀에 고리 달면 흥흥 징조라 하옵니다.

- (42) 산꼭다이에 불을 노흐면 더동이 업느니라.

- (144) 남으로 머리 두고 자면 장슈하고 북으로 머리 두고 자면 단명훈다 훗니다.

- (190) 온경은 거울에도 쏠으니 리치를 알 수 업스외다.

- (229) 남형날 눈 오거든 닛디말고 향으리에 너어 두엇다가 속병에 먹으면 득효니라.

- (322) 코키리는 코구녕에 쥐가 들어가면 죽는다 하옵니다.

- (331) 여호가 집 근처에 와서 우니 아마 동니가 언잔갓다.

- (332) 룯기가 달 속에서 약방아 췌는다 하더라.
- (355) 득겍이는 비암에 등성이췌로 되는 거시오.
- (482) 히바르기 췌치 히롤 췌차 머리롤 속이니 이상하외다.
- (610) 집 뷔여두면 귀신이 작란하느니라.
- (615) 셔남에 가서 치성하면 조켓소.
- (619) 오대조 신췌는 덕안하느 법이라.
- (702) 지남뵐 발발 췌는 거시 조치 안타.
- (1038) 우질부작을 췌 붓치오.

이들 例文은 대개 自然現象에 대한 100년전 韓國人의 知的 水準과 對應樣相을 보이는 내용들이다. 오늘의 觀點에서 보면 失笑를 禁할 수 없는 無知가 발견된다. 이와같은 基礎的인 科學常識의 不足은 謙양과 尊중을 美德으로 삼는 儒敎의 가르침과 造化되어 윗사람의 말을 담박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美風良俗을 유지하고 있었다.

3. 原則談의 設定問題

3.1. 原則法의 文章들

우리는 앞에서 19세기말, 한국의 庶民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를 그들의 말을 통해 살펴 보았다. 비록 그것이 극히 단편적이긴 했으나 그들의 순박성과 단순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물론 科學常識의 無知가 心性의 明敏과 愚鈍에 직접 關여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그러한 俗信과 無知는 새로운 知識을 받아들이고 윗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謙虛에는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儒敎의 여러가지 德目(孝悌忠信, 仁義禮智 등)은 年長者나 上級者의 말에 權威를 부여했을 것이며 그것은 發話時에 어떤 形態로든 反映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初刊本 例文들을 검토할 때에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終結語尾가 “—하느니라, —하니라”로 된 文章들이었다. Gale은 이러한 文法形態를 獨立 現在 直說法(The independent present indicative)이라 命名하면서 事物을 직접 가리키지 않고 一般的이고 普遍的인 事項을 言及할 때, 未來를 現在로 표현할 때, 모르는 事項을 가르칠 때 使用한다고 說明하고 있다.⁽⁶⁾

(6) 初刊本 pp.5~6, 改訂本 p.22 參照.

韓國語에서 終結語尾의 體系가 차지하는 文法的 重要性은 아무리 強調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Gale도 文法部의 대부분을 이들 終結語尾의 機能解說에 割愛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終結語尾體系에서 “-하느니라”는 20세기말 現代韓國語에서 거의 完璧하게 자취를 감춘 形態이다. 물론 나이든 노인들의 會話體에서 간간히 들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이미 作爲的인 擬古體 表現에 지나지 않는다. 文語의 경우에는 19세기 文體를 固守하고 있는 大韓聖書公會 1964年 刊行의 基督教 聖經全書에 나타나고 있을 뿐, 現行하는 모든 公私文書나 著作物에서 “-하느니라(-하나니라)”는 實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한국인들은 “-하느니라” 終結語尾가 나타내는 意味機能을 分明하게 熟知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表現이 成立可能한 話用論的 狀況에 대한 이해도 완벽하다.

3.2. 原則法을 設定한 文法論들

意味論이나 活用論의 眼目으로 文法形態들을 解釋하지 않던 時期에 文法學者들은 “-하느니라”를 叙述體系안에서만 說明하면서 直說法에 包含시켜 왔다. 그러나 直說法의 하나로만 놓아두는 데 不滿을 느낀 몇몇 學者들은 이것을 따로 分離하기 시작하였다. 정인승(1960)은 “-하느니라”를 일반적인 직설법체계에서 분리한 최초의 학자중 한 사람이다.⁽⁷⁾ 그의 뒤를 이어 李崇寧은 直接法 속에 規定法이란 항목을 설정하고 거기에 이 “하느니라”를 집어 넣었다.⁽⁸⁾ 그후 이 “-하느니라”系 文法形態에 대해 가장 깊이 있고 또한

The independent present indicative.

Used (1) with what is spoken of without any reference to being seen, as what is general, universal, (2) with the future as present, (3) in teaching or in telling another what he does not know. I. Respectful forms (흥)닌다. 슴니다. II. Forms used to servants, children & c. (하)느니라, (하)느니. (1st edition pp. 5~6)

The independent forms present indicative.

These forms are used in making a general statement without regard to matter being directly seen or in hand and so are called “Independent”. They are also used for the future tense, or in giving instruction. The higher forms are: 흥닌다. 덕음니다. 봄니다. 보심니다. 주심니다. The lower forms used to children etc: 하느니라, 주느니라, 주시느니라. (Revised edition p. 22)

(7) 정인승(1960), 의문해설 한글강화 p. 304.

(8) 李崇寧(1961), 中世國語文法 pp. 175~176, pp. 180~181.

說得力 있는 解明은 高永根(1965, 1981)에서 발견된다. (9) 그는 現代國語의 叙法體系를 直說, 回想, 原則, 推測, 確認의 다섯가지로 分類하고 “—하나니라”를 原則法에 소속시킴으로써 直說法에서 分離하였다. 그가 設定한 叙法體系를 表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0)

文體法 尊卑法	叙法	直說	回想	原則		推測	確認	
				直說原則	回想原則		直說確認	推測確認
해라	認明	하라	하더라	하느니라	하더니라	하리다	하것다	하럿다
	感嘆	하구나	하더구나	×	×	×	×	×
	疑問	하 하느뇨 하니	하더냐	×	×	하라	×	×
하계	說明	하네	하데	하느니	하더니	하리	×	×
	感嘆	하네그러	하데그러	×	×	×	×	×
	疑問	하는가 하느고 하나	하던가	×	×	할까	×	×
하오	說明	하오	하데요	×	×	하리다	×	×
	感嘆	하구료	하더구료	×	×	×	×	×
	疑問	하오?	하던가요	×	×	하리카	×	×
합쇼	說明	합니다	합디다	합닌다	합린다	하오리다	×	×
	感嘆	합니다그러	합디다그러	×	×	×	×	×
	疑問	합니까?	합디까?	×	×	하오리카?	×	×
하소서	說明	하나이다	하더이다	하나니이다	하더니이다	하리어다	×	×
	感嘆	하고녀	×	×	×	×	×	×
	疑問	하나니까	하더이까	×	×	하리이까	×	×

이 原則法에 대한 高永根의 二次에 걸친 解說은 다음과 같다.

“原則法은 話者가 事態를 不變的 既定的인 것으로 把握하여 알림으로써 聽者의 注意가 그것에 集中되기를 바라는 意圖가 作用할 때 쓰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通報行爲가 自動的으로 一方性을 띤다. 原則法은 原則的 내지 既定的 事實과 같은, 누구든지 승복할 수 있는 客觀적 經驗에 근거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行動의 規律을 明示하거나 默示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原則法은 의무를 規定할 수도 있고 許

(9) 高永根(1965), 現代國語의 叙法體系에 대한 연구, 國語연구 15號 p.14.

高永根(1981), 中世國語의 時相과 叙法, 塔出版社 pp.93~106.

(10) 高永根(1965)이 想定하고 있는 現代國語는 1930年代를 前後한 言語를 指稱한다. 이 무렵까지 이른바 原則法은 比較的 生産的이었다. 그러나 1980年代인 오늘에 이르러서는 사정이 달라졌음을 確認한다. 즉 擬古的 表現이 되었다.

諾이나 禁止의 의미를 함축할 수 있다.(高永根 1981, p.106)”

“이 原則法이 現代國語에서 무너지고 있는 實情에 있기는 하나 英語를 비롯한 大部分의 言語가 原則的인 事實을 表示하는 特殊한 第次에 依支함이 없이 現在形이 그 機能을 擔當하는 것을 考慮하면 原則的인 事實을 表示하는 文法形式이 따로 存在한다는 것은 우리 國語의 한가지 特徵이 아닐 수 없다.(高永根 1965, p.75)”

위의 引用중 앞의 것은 中世國語의 叙法을 論議하는 자리에서 言及한 것으로 話用論的 配慮가 짙게 풍기고, 나중 部分은 1930年代 國語를 中心으로 論議하는 자리에서 言及한 것으로 原則法이 국어에 존재한다는 特異性을 강조하고 있다.

3.3. 原則談의 設定

우리의 논의는 위에 소개한 바와 같이 原則法을 叙法體系의 하나로 설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시작된다. “—하나니라”로 표현되는 문장이 1980년 대인 現代國語에서는 擬古的 表現으로만 存在한다면, 그 原則法이 나타내려고 하는 話用論上의 意味機能은 어떤 形態가 擔當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두 가지의 길을 택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英語를 비롯한 大部分의 言語에서처럼 直說法 現在形을 취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는 법이다”와 같은 表現을 택함으로써 內包文의 내용이 “原則”에 속하는 것임을 明示的으로 밝히는 方法이다. 이 後者의 方法은 “—하나니라”가 이미 現代人의 言語感覺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하는 법이다”와 같은 表現을 통해서라도 그 內包文의 내용이 韓國人의 言語社會에서 “原則”으로 存在함을 力說하고자하는 話者의 強한 慾求의 表出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表現들은 意味論 또는 話用論의 觀點에서 特定한 表現範疇로 묶어야 할 必要性이 생긴다. 우리는 이미 慣用表現句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것에 俗談⁽¹¹⁾ 禁忌談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原則을 나타내는 表現이 獨立된 意味論的 名稱을 가져야 한다면 “原則談”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要컨대 原則談은 話者가 權威와 信念을 가지고 자기가 眞

(11) “俗談”이란 用語는 一般의 慣行을 존중하여 그대로 쓰는 것이지만 意味論의 觀點에서는 차라리 比喩談이고 해야 옳다는 것이 筆者의 생각이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比喩性 俗談”이라고 적기도 하였다.

實이라고 믿는 내용을 言明하거나 指示하거나 가르치기 위한 發話로서 終結語尾를 “-하느니라”型으로 말하는 形式이다.

이제 “-하느니라”系의 原則法 文章들이 果然 “原則談”이라는 慣用句의 하나로 設定될 수 있는지를 Gale의 文法書 K.G.F.를 가지고 檢證해 보기로 하자.

첫째, Gale의 初刊本 1098個 例文에서 “-하느니라”系의 文章은 215個에 達한다. (-하느니라型 130個, -하느니型 47個, -하느니다型 10個, 하느니다型 28個) 改訂本에서는 551例文中 161個가 “-하느니라”系 文章이다. 전체적으로 “-하느니라”系 文章이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이 숫자가 日常會話에서 차지하는 “-하느니라”類의 使用頻度を 直接的으로 反映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比重의 크기는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사실은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걸치는 最近世後期國語에서 原則談이 상당히 보편적인 發話形式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原則談을 慣用句로 認定하게 하는 妥當性を 높인다.

둘째, 原則을 나타내는 表現이 대개의 경우에 禁忌談이나 比喻性 俗談과 意味機能을 共有한다. 즉 禁忌談이나 比喻性 俗談을 原則法文章으로 바꾸어도 그 文章의 基本意味는 변하지 않는다. 가령 初刊本 例文部の 다음 文章은 그 終結語尾가 “-하느니라”로 바뀌어도 여전히 그 本來의 俗談機能을 유지한다. (다음중 a는 原文, b는 原則法 文章의 形式으로 바꾼 것)

- (556) a. 선가 엮는 놈이 비에 먼저 올랐구나.
b. 선가 엮는 놈이 비에 먼저 올느느니라.
- (573) a. 밋친년에 가슈 서룻듯 하느구나.
b. 밋친년에 가슈 서룻듯 하느니라.
- (1048) a. 망전 쓰다 장 파하겠다.
b. 망전 쓰다 장 파하느니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原則法에 의한 文章은 俗談의 機能을 包容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은 두가지 事實은 原則法에 의한 文章이 慣用表現句의 하나로 設定될 수 있는 可能性을 높인다. 즉 보편 타당한 眞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意味論的 慣用性を 確保하며, 特定한 終結語尾 “-하느니라”를 취한다

는 점에서 文法的 慣用性까지도 確保한다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느니라”系 文章을 原則談이라고 부르코자 한다.

3.4. 原則談의 特性

原則談은 Gale 文法書가 간행된 19세기말과 20세기초를 마지막으로하여 慣用表現句로서의 세력을 점차 喪失하여 갔다. 아마도 1930년대는 前時期의 殘影으로 存續하였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Gale 初刊本 例文에도 意味內容으로 보면 마땅히 原則談으로 表現되었어야 했을 文章이 단순한 直說法으로 나타난 경우가 발견된다. 다음 例文을 보자.

- (925) 원슈 감는 거시 설치요.
- (974) 티양 고이훈 놔은 보기 실터라.
- (1003) 사롬 기다리기가 메일 어렵소.
- (1005) 두려운이는 선심이오.

이들 文章을 다음과 같이 原則談으로 바꾸어 보자.

- (925)' 원슈 감는 거시 설치니라.
- (974)' 티양 고이훈 놔은 보기 실흐니라.
- (1003)' 사롬 기다리기가 메일 어려우니라.
- (1005)' 두려운 이는 선심이니라.

이렇게 原則談으로 바뀐 表現은 더욱 強力한 情報傳達效果가 발생한다. 물론 위의 네 文章(925)(974)(1003)(1005)는 話者가 聽者보다 나이나 地位가 낮은 경우의 發話狀況을 반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原則談으로 表現될 수 없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制約이 原則談의 特性이라고 생각된다. 즉 原則談은 比喻性 俗談이나 禁忌談보다는 慣用性的 程度가 弱하여 發話狀況에 따라 單純한 直說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融通性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原則談은 位階秩序上의 權威가 堂堂하던 時代에 敎示의 內容이 絕對眞理로 訓諭하는 特權을 누렸다. 現代에도 聖經의 文句는 原則談으로 표현되었을 때에 그 秘義가 啓示性을 발휘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오늘날 50代 以上の 韓國사람들은 그들이 어렸을 때에 日常生活上의 禮儀凡節이나 基礎敎養을 그들의 父母나 祖父母로부터 原則談의 形式으로 傳受받았던 經驗을 아름다운 追憶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原則談은 지난 時代의 文體的

特性으로도 指摘되어야 할 것이다.

4. 結 語

以上으로 우리는 Gale의 문법서 K.G.F.에 대한 再照明을 마무리 짓는다. 그의 문법서 <Korean Grammatical Forms>는 무엇보다도 現代國語의 母體로서의 正統性 및 純粹性を 지닌 言語資料라는 점에서 注目되어야 한다. 그가 세번에 걸쳐 文法書를 刊行한 時期에 韓國語는 開化의 물결속에서 外來要素의 流入으로 말미암아 純粹성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Gale은 보다 옛스런 한국어를 취급하여 한국어의 전통적 특성을 보여 주려고 하였다. 더구나 그것은 西洋人の 눈으로 본 客觀的 評價의 결과이었다. 그는 傳統의 默守라는 一貫된 原則을 지키기 위하여 당시의 慣行에 따라 一切의 띄어쓰기를 排除하였다. 또한 改訂版에서는 日常漢字熟語를 따로 취급한 경우에만 漢字를 포기했을 뿐 그 밖에는 철저히 한글전용을 지키고 있다. 당시 庶民들의 諺文表記 慣行을 성실하게 반영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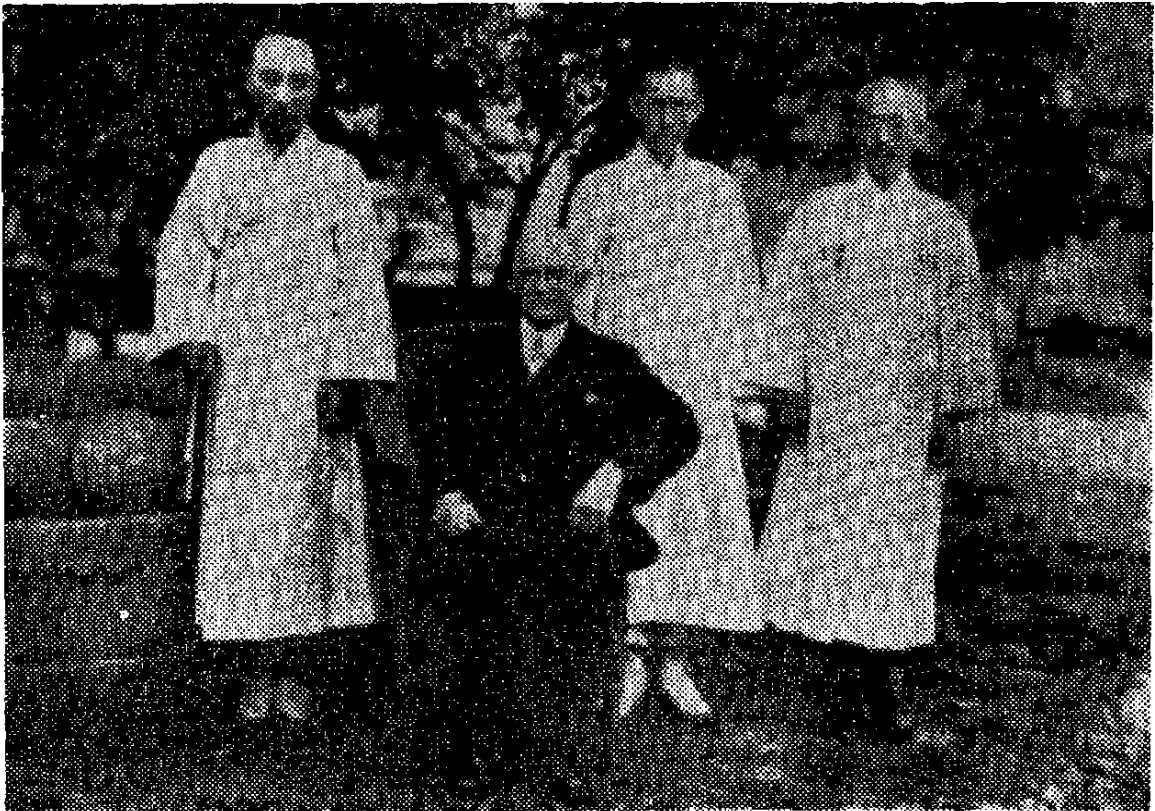
한국을 사랑하고 이해한 서양 선교사가 많이 있지만 著述을 통하여 한국인의 참모습을 그려낸 이는 많지 않다. 그 많지 않은 분 가운데 J.S. Gale은 더욱 완벽하게 한국을 이해했던 분이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한국사람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한 최초의 캐나다인이었다. 이 글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오늘의 시점에서 이들 문법서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친 한국어 구어의 생생한 자료를 제시한다. 더구나 초간본에서 개정본에 이르는 20여년간의 변화의 모습은 그 당시 한국어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더없이 귀중한 자료가 된다. 서양인으로서 한국의 문화전반을 어떻게 빨리,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할 것인가하는 관점에서 수집한 초간본 1098개의 예문은 한국어의 문법적 특성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방식과 의식구조를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얻기 힘든 어휘와 표현들이 그 당시의 생활과 의식의 단면을 밝힌다.

2. 둘째, 그 당시의 언어생활이 100년이 지난 현재와 비교해 보면 두 가지 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하나는 한자어의 사용이요, 다

른 하나는 속담과 같은 관용표현의 사용이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일상언어 생활에 깊이 뿌리박힌 것이었음이 이들 문법서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3. 세째, 관용표현 가운데에는 오늘날 거의 사용되지 않는 原則談이 널리 활용되었음이 입증되었다. 이들 원칙담은 이른바 원칙법에 의한 표현으로, 일상의 생활규범이나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 전달의 수단으로 자주 쓰임으로써 속담, 금기담과 더불어 관용화된 표현범주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Gale의 문법서는 원칙담에 속하는 풍부한 예문을 제시해 주어, 원칙담이라는 관용 표현 범주를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 「제임스 스카스 게일」 박사가 한국에서의 선교활동시 모습.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